

다산포럼

대통령의 거수 경례



서지문
고려대 교수·영문학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소위 군 최고 통수권자라는 인간들이 그런 얼빠진 경례를 하면서 군기를 단속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초년병이 고태병에게 그런 경례를 한다면 아무리 민주화된 요즘이라도 호헌 기합을 받고 다시는 경례를 허투루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 특히 북부기간이 10년 이어서 청춘을 군대에 바쳐야하는 북한의 군인들은 자기들의 국가 원수요, 군 최고 지휘자의 그런 경례를 보면서 심경이 어떨까? 핵무기 갖고 군대놀이를 하는 어린 아이의 '장난감 병정'이 된 기구한 운명이 얼마나 한스러울까?

김정일, 김정은 식의 거수경례는 군대에 대한 모독이고, 국민에 대한 무지막직한 결례이다. 거수경례는 서양문화의 멋진 발명품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서양에서도 옛날에 남성들의 짙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허리를 깊이 숙이는 것이었다. 목 뒷미와 등을 상대방 앞에 무방비로 내려놓아 생사여탈권을 바친다는 신뢰와 존경의 제스처였다.

그러나 군대에서, 전시상황에서 그런 예의를 표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다. 절을 하는 동안에 적군이 덮

칠 수도 있지만 그런 정교한 절을 하는 사이에 긴장이 풀어질 수밖에 없고, 또 긴장을 풀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극히 시간을 절약하면서, 에너지 소모는 최소화하면서, 긴장을 오히려 조이는 거수경례가 고안된 것이 아닌가 한다. 힘을 주어서 찰칵, 예각으로 팔을 접어서 최대한 안에, 최소의 에너지를 들여, 정신력을 재무장할 수 있는 인사이다.

이번에 여성대통령을 맞으면서 흑시나 경례를 제대로 못해서 '역시 여자야' 소리가 나올까 조금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아바타가 철두철미한 군인이었고, 자신도 퍼스트레이디 역을 하면서 여러 군 행사에 참석했을 것이므로 별문제 없겠지 했다.

그런데 취임식장에서의 경례는 조금 미흡했다. 손가락은 잘 붙어있었고, 팔꿈치의 각도도 확실히 예각이었지만 손바닥이 조금 밖을 향했다. 손도 얼굴과 3cm 정도는 떨어져 있었고, 손가락 끝이 눈썹보다 약간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며칠 후에 계통대의 장교 임관식에 가서 보니 경례는 정확했다. 경례가 정확하니까 훨씬 결연해 보이고, 군 통수권자로서 믿음이 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 누가 박 대통령에게 정확한 경례 법을 가르쳤고, 박 대통령은 정신 차려 배웠다는 증거로써 마음 든든했다. 북한에서는 무수한 별들이 김정일, 김정은의 주위를 맴돌지만 그 노장들이 감히 젊은 우두머리의 경례하나 바로잡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로동신문이나 중앙TV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영웅이요, 장군인 지도자'의 맥 빠진 경례에 대해 언급생심한 줄, 한 마디 언급하지 못한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의 경례가 정확하다고 해서 우리 군의 기강에 대해 안심할 수는 물론 없다.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의 이력을 보면 장성급의 군인정신이 얼마나 훼손되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그렇게 백만 군인의 모범이 될 수 없는 사람을 기어코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려 한 것은 심각한 군 기강 훼손이고, 우리 군대와 국민에 대한 무례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자리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로 채워져야 하지만 국군 관련 인사야말로 정치적 임명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번 일로 박 대통령이 이 점을 확실히 인식했기 바라마지 않는다.

음부즈맨 칼럼

진한 사람 향기 가득한 ‘힐링 신문’ 기대한다



조미옥
나주 봉황중학교 교사

시대를 선도하는 광주일보만의 소중한 자산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광주일보가 미래에도 지금처럼 변함없이 많은 독자들의 애정과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그 누구도 정답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어떤 신문이나 언론도 변화와 끊임없는 혁신 없이는 독자의 애정과 관심을 잡아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광주일보가 나아가야 할 길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 정보의 수단이 제한되어 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쉽게 정보를 얻고, 공유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내는 거대한 정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조별교수는 글로벌 인재가 갖추어야 할 미래사회의 핵심적 역량은 창의성, 전문성, 인성이라고 하였다. 물론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갈파하였지만 더 크게는 언론에서도 올바른 인재가 형성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보환경에 부합하는 목표를 제정하고 가치관을 제시하여 예방 광주의 지방지로서 차별화된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광주일보가 나아가야하는 길일 것이다.

4단 민화를 예로 들어보자. 그날 기사 내용을 해학적으로 예뉘려 표현해내는 재치가 감칠맛 나기 때문에 속이 뽀 뽀리는 시원함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독자들에게 인상적이며 그래서 장수하는 것이다. 사진 한 장이라도 직접 발로 뛰고 체험하여 찰나를 포착하려는 정성으로 전문성을 보이면 독자들을 감동받는다.

신문은 신문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신문은 더욱 그러해야 한다.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공감을 불러 일으켜 위안이 되고 치유가 되는 것이다.

중학생이던 아들이 들려준 이야기이다. 학교 도서관 구석에서 친구들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는 책을 발로 밟으며 나름 스트레스를 해소했다고 하였다. 이유인즉 자기들에게는 공부가 힘들고 어려운데 열 받게 한다는 것이었다. 며칠 뒤 “공부가 가장 어려웠어요”라는 책을 발견하고 신대륙을 발견한 것 마냥 돌아가며 읽었다고 했다. 결국은 공부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스페이 많고 너무나 모범적이라,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이야기보다는 비슷한 조건에서 극복하

고 이겨내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더 공감하며 호감이 간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독자와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보석 같은, 진한 사람 향기를 풍겨내는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노력이 돋보이는 퍼플&라이프 코너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어부아저씨며 손도장 파는 이웃집 아저씨들의 이야기 ‘삶이’고 ‘문화’인 것이다.

자기 일에 자부심과 당당함을 가질 수 있도록 명석을 깔아준 것은 참신하고 고마웠다. 밥 한 그릇의 소중함도 크지만 글 한 줄이 주는 위안은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치유의 힘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산다는 것은 결국 선택이고 스토리텔링인 것이다. 이렇듯 언론이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보듬을 수 있어야 하며 걸러 내기가 아닌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미담을 찾아내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광주일보 독자들에게 응원적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신문이며, 누구나 만 들 수는 없는 신문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광주일보에 기대하는 독자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다.

社說

정부, ‘아시아 문화전쟁’ 광주 전폭 지원해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가 21세기 아시아 문화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광주만의 독특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갖는 등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뿐만 아니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국가 도시들이 오는 2015년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사상 유례없는 문화전쟁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홍콩은 지난 1998년 아시아의 문화 허브를 내걸고 ‘서구용 문화지구’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았다. 전세계 최대 규모의 문화프로젝트로, 오는 2015년부터 203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아시아의 뉴욕현대미술관’을 표방한 M+미술관과 시추오페라극장 등 17개의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싱가포르 역시 지난 1999년부터 ‘르네상스 시티 프로젝트’ 일환으로 국립박물관을 리노베이션하고, 국립도서관을 새로 짓는 등 대대적인 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인 에

스플라네이드도 이 프로젝트 중 하나다. 광주도 오는 2015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필두로 2023년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중심도시 사업이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지 못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전담 운용 전담인력을 뽑지 않은 채 프로그램만 짜고 있는 상태다. 또 전담 콘텐츠 개발도 광주만의 독특한 정체와 가치 등이 담겨야 하는데 지역 사회와 교감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나마 지연되는 실정이다. 전담 개관 이후 운용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 계획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홍콩과 싱가포르, 광주에서 벌어지는 문화전쟁은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 여부에 따라 회비가 크게 잇달리게 된다. 정부는 국책사업임을 감안, 전폭 지원해야 하며 광주시도 아시아문화를 선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현실화된 광주 고교생 학력 저하

우리가 현실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고교 출신 서울대 신입생이 3년 연속 감소한 데다 전국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급격히 추락한 때문이다. 7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해온 ‘실력 광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긴 것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최근 서울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2011~2013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지역별·고교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신입생 등록자는 3283명으로, 이 중 광주지역 고교 출신은 116명에 머물렀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위에 해당된다. 전남은 73명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15위)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광주지역은 지난 3년간 서울대 진학률이 크게 떨어졌다. 2010년 143명이었던 신입생이, 2011년에는 125명, 2012년에는 119명으로 3년 사이에 27명이나 감소했다. 서울대 입학률은 지금까지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 잣대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그에 따른 학교, 학부모의 우려는 클 수밖에 없다.

‘실력 광주’의 위상 추락은 무엇보다 교육의 안정과 균형보다는 진보적 정책 변화가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장휘국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실시해 온 심화반 금지와 방과 후 자율학습 단축, 방학 중 자율학습 제한 등 지나칠 정도로 규제해온 게 사실이다.

우리는 장 교육감에 대해 변화와 개혁은 필요하나 학교와 학생의 경쟁력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누차 천명한 바 있다. 실력이 교육의 전부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장 교육감은 현재 광주교육이 처한 상황을 직시해 안정과 균형을 통한 학생들의 실력 향상에 정책의 주안점을 뒀어야 한다. 오랜 기간 지역 차별 속에서도 광주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킨 게 바로 실력이 아니었던가.

無等鼓

“옛날 한 옛날 20세기가 끝날 무렵에 ‘동할’이라는 바보 같은 어른이 살았습니니다”라는 어린이의 내레이션으로 시작되는 영화 ‘바보선언’(감독 이창호)은 척박한 한국 영화풍토에서 나온 수작이다. 1983년 발표된 이 영화는 블랙 코미디 형식을 빌려 1980년대 한국사회 어두운 단면을 은유와 풍자로 비판한다.

영화 후반부에 가면 고상한 연희장이 음란한 장소로 변하는 대목이 나온다. 나비 넥타이에 멋진 양복을 걸쳤지만 하의는 팬티바람의 남자들이 수염복 차림의 ‘여자’에게 양주를 끼얹고 억지로 먹이며 희롱하는 장면이다.

2000년 영국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유작(遺作) ‘아이즈 와이드 섯’(Eyes wide shut)에서도 상류층의 비밀 섹스 파티 장면이 나온다. 주인 공은 파티장소를 우연히 알게 돼 몰래 들어가 가면을 쓰고 집단섹스를 벌이는 난교파티 현장을 목격하다 발각되고 만다. 묘사 면에서 ‘바보선언’이 은유와 풍자적 화법이라면 ‘아이즈--’는 19극(禁)

의 직설적 화법이라는 점이 다르다. 최근 강원도 한 별장에서 벌어진 사회 지도층 성접대 의혹사건 파문이 일파만 파다. 접대 대상으로 전·현직 고위 공무원, 전직 국회의원, 병원장 등 사회지도층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현실속 사회 지도층의 ‘모랄 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가 우연찮게 영화세계와 관련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새 정부 출범 한달여 기간 동안 총리·장·차관 후보자도 뽑혔던 7명의 인사가 투기의혹과 해외 비자금계좌 운영 등 각종 사유로 인해 줄줄이 사퇴한 것과 맞물려 서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하고 있다.

청렴한 행적을 글로 찬양한다는 것이 누가 할 수 있다 해 묘소 앞에 상징적으로 백비(白碑)를 세운 조선전기 문신 박수량(1491~1554)의 삶은 현재와 너무 동떨어진 것일까? 경제적으로 파락한 이매 ‘도덕성’과 ‘형제적으로 파락한 이매 사표(師表)가 될만한 사회지도층의 모습을 보고 싶다. /송기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기고

난파선과 수권정당, 갈림길에 선 민주당



홍인화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하지만 길지 않다. 과연 ‘안철수 현상’이 앞으로 내내 지방선거, 3년 반 후인 총선, 4년 반 후인 대통령 선거까지 꼭 건지는 보장은 없다”고 주장한다. 광주 모 국회의원은 지역위원회 회의에서 구의원, 시의원, 당직자를 모아놓고 안철수 신당에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신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가 처신을 똑바로 하라고 경고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들의 주장은 애당심일까? 기득권에 취한 집단적 편견이 아닐까? 모를 일이다. 불행하게도 이들 주장에 담겨있는 일관된 요지는 대미불사, 무사안일, 현실안주라는 고사성어를 떠올리게 한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위기는 안철수 때문인가? 많은 사람이 민주당 위기는 민주당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한다.

단지, 당 핵심 인사들만 모를 뿐이다. 아니 그들만 진실을 외면하고 있는지 모른다. 민주당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 사망하다. 민주당은 당원을 대표하는 대의원 제도를 통해 대의원이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고 당 대표 선출 권한 50%를 행사한다. 대의원은 당원이 선출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대의원을 지명한다. 대의원을 국회의원이 지명하는 행태는 당심을 왜곡하고 민의 반영이 막힌인 사망화로 귀결된다. 대의원을 지명하는 제도로 당 지도부 선출을 할 바에야 원내대표 선출처럼 지역위원장이 당 지도부를 뽑으면 될 일을 대의원이 참여한 요란한 전당 대회는 왜 하는지 의문이다.

둘째 책임정치 실종이다. 천정배 전 의원은 전남대 5·18 연구소 초청 ‘광주정신과 호남정치의 미래’ 특강에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다”며 “지난 10년 동안 우왕좌왕 해온 민주당에는 ‘제대로 된 반성’이나 ‘자기해신’ ‘국가비전’ 등 3가지가 없었다” 진단했다.

2012년 총선에서 패배한 뒤 총선 평가서를 작성하고도 공계를 미룬 사실이 책임 정치 실종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범야권이 총력 지원했던 대통령선거에 패배했으나 내 탓이오 하는 사람이나 세력은 없고, 서로에게 책임전가에 급급한 행태는 책임정치가 실종된 민주당의 맨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책임정치 실종은 수권정당 민주당이 아닌 불임정당으로 낙인찍힐 위기에 놓였다. 태풍은 강하나 오래가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력한 태풍은 넓은 집을 통째로 날려 버릴 수도 있다. 태풍의 세기를 결정하는 것은 공급하는 에너지에 달려있다. 넓은 집 문고리만 잠고 있다고 태풍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의의 주장처럼 과거 제3세력의 정치세력화는 실패했다. 하지만, 지금의 안철수로 대표되는 세력은 과거 국민참여당이 나창조한국당이 얻지 못했던 호남과 20·30대 지지층 등에 업고 있다.

안철수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패권적 계파주의, 공당이 아닌 사당화, 책임정치 실종을 청산하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안철수는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그동안의 구습을 청산하고 새롭게 혁신해야 한다. 민주당의 앞날은 민주당 스스로에 달려있다. 새 정치라는 태풍에 좌초할 것인가 아니면 넓은 정치를 청산하고 수권정당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이 새로 태어나야 할 절제절명의 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생실습 가려서 받는 학교 차별행위 시정돼야

대학의 사범대학생이나 교직과정 이수자들은 4학년 1학기 때 반드시 교생실습을 해야 최종 교사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 그런데 상당수 실습생이 실습대상학교를 찾지 못해 고민거리라고 한다.

또한교생 졸업생이 실습을 요구하면 무조건 받아들이고 타고 출신이반만 실정

인데 이는 너무 편협되고 차별을 하는 행위로 시정돼야 마땅하다. 반면 공립학교들은 책 키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교육청에서 배정하면 수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사립들이 반대하며 심지어 사립교당에서 소모에 반대를 받자 말자고 협의까지 한다는 소문도 들린다. 교사를 희망하는 예비교사들에게 실습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학교와 기성교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오히려 실습생들이 학생들을 실습하고 가르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현직 교사들과 교장, 교감 등 관리직들도 대학 시절에 교사가 되기 위해 교생실습을 거치지 않았는가. 자신들은 교생실습을 거쳐 정식교사가 되었는데 앞으로 2세를 가르치겠다는 예비교사인 교생실습생들에게는 기

회조차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주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배격돼야 하리라 믿는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모든 종교교는 실습에 협력해야 하며 거부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더라도 실습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생실습을 원하는 대학생들이 누구나 편안하게 아무 데서나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과 학교 종교교, 대학교직과에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가지길 바란다. ▲우정렬·광주시 서구 회장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국 2200-66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2-9500) (F A X 227-9500)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